

국방특세 발전기

(1991~현재)



국산 잠수함 항해모습



국방태세 발전기는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1990년대로서 오늘의 국군의 참 모습을 찾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군 구조개선, 방위력개선, 국방정보화,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비전력관리 및 동원태세 확립 등 모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정예군사력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한 억제전력의 보강과 국가안보전략 차원의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 추진해 온 전력증강사업(1·2차 율곡사업)을 1990년대에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연계시켜 계속 추진함으로써 외부의 침략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1950년 UN군에 넘겨 주었던 '작전통제권' 중 1994년 말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환수하였다.

이로써 비록 전시에는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에 우리 군의 일상적인 작전활동은 합참의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국방태세를 보다 발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서울 도심지에 위치하던 각군본부를 계룡대로 이전함으로써, 비상시 작전지휘부의 생존성과 작전상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육·해·공군 상호간의 협조체제 유지로 통합전력 발휘상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이 지구촌의 국제적 평화 없이는 어느 나라도 평화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국군도 세계평화유지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1990년대에도 방위력개선사업(1970~1980년대 율곡사업이라 명명된 이 사업은 전력증강사업, 전력정비사업이라고도 불리어졌으나, 1996년 1월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명칭 변경함)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군은 '합리적인 방위력개선 개념 설정과 효율적인 개선방안 구현'이라는 기본 방침하에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한 억제 전력의 보강과 장기 국가안보 전략차원의 자주적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요무기의 국산화를 통하여 첨단 국방과학 기술과 방위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기술집약형 전력 구조로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정책의 불변과 내부의 불안요소,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등 예측 불허의 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발전을 통한 통합 전투력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태세 발전기 동안 군별 방위력개선 실적은 다음과 같다.

지상전력

지상군은 북한의 도발시 이를 저지 격멸할 수 있는 방어전력을 확보하고, 전략환경 변화, 장차전 양상과 대응전략 개념을 고려하여 입체 고속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등의 핵심 전력과 전투 공병장비, 전투근무 지원 요소 등을 중점 보강하여 단위전력의 전투 효율성 증대 및 전쟁 지속능력을 강화하였다.

기갑전력은 입체 고속기동전의 주축전력으로서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우수한 한국형 전차(일명 88전차) 400여 대와 한국형 장갑차 700여 대를 생산하여 기계화보병사단과 기갑여단에 배치시킴으로써 기동장비의 근접지원 능력을 향상시켰다. 포병전력은 포병의 수적 증강과 병행하여 화포, 탄약의 질적 개선으로 북한보다 수적으로 열세한 면을 보강하고, 특히 포병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계화부대 지원포병을 자주화하여 기동화포 전력과 응징보복 전력을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155밀리 자주포 수백 문을 생산하여 기계화부대에 배치함으로써 기동성과 생존성을 향상시켰으며, 대포병 레이더(AN/TPQ-36)도 도입, 실전배치하여 대포병전 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다련장 로켓을 전방지역에 작전배치함으로써 화력 집중력을 향상시켰다. 미래 전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중기동전력 확보를 위하여 군은 차세대 대형 공격헬기, 중·대형 기동 및 소형 헬기 등의 신예헬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야간작전 및 은밀침투가 가능한 항공 탑재장비를 보강하여 생존성 보장과 작전 수행능력을 증진하였다.

해상전력

해상전력은 미래의 한반도 전략 환경변화에 대비한 입체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수상, 수중전력, 항공전력, 상륙전력, 지원전력의 균형발전과 전략 타격능력의 보유 등 대양 해군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수상전력의 경우 최신편 무기체계와 장비로 무장된 한국형 구축함을 국내에서 건조, 1990년대 말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책임해역 통제 능력을 향상시켰다. 즉, 호위함, 초계함을 건조하여 기동전대에 배치하였고,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여 고속정 전투부대에 배속시켰다. 또한 대함, 대공유도탄, 신형어뢰 등 탑재무기도 도입하였다. 수중전력은 1993년 6월 해외에서 도입한 1,200톤급 잠수함 '장보고함'을 취역시킨 후 국내에서 후속 잠수함을 건조 실전 배치하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수중작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해군의 항공전력은 1995년 신형 해상초계기를 확보함으로써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먼 바다 초계작전능력을 갖추었고 신형 해상작전 헬기 10여 대를 도입배치함으로써 수상, 공중의 입체적 대잠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상륙전력의 경우 상륙작전 수행간 입체고속기동을 위하여 신형 상륙함의 국내건조, 상륙기동헬기 UH-60의 도입, 자주포의 확보 그리고 1990년대 말까지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해병대의 전략적 기동능력을 갖게 되었다.

항공전력

항공전력은 대북한 수적 열세를 빠른 기간 내에 극복하고 질적 우위를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주야간 작전과 전천후 작전능력을 갖춘 최신편 전술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정찰, 수송 등 지원 기종의 도입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전술기 분야에서는 즉각 응징과 반격은 물론 육·해군에 대한 신속한 화력지원





이 가능한 고성능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거리 공격능력을 갖춘 공대공 유도탄과 지·해상 표적에 정밀공격이 가능한 공대지 유도탄을 확보하고 있다.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사업(KFP : Korean Fighter Program)에 의거 1990년대 초 F-16 완제기 도입과 함께 1990년도 말까지 기술도입 생산 계약에 의한 성능이 우수한 전술기를 갖게 됨으로써 공군의 노후장비를 보충함과 동시에 항공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기 분야에서는 중형 수송기(CN-235M)를 다량 도입하여 주야간 및 전천후 전술 공수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특수전 부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훈련기 분야에서는 신형 훈련기(T-59)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노후된 UH-1 헬기 대신에 UH-60 헬기를 기술도입,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방공체제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추가 확보하고, 출격 횟수 및 작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통합전력

우리 군은 통합 전투력 발휘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장차전 양상과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관련요소가 체계적으로 통합된 방위력개선을 추진하였다. 정보·전자전 전력은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력이므로 군은 정보현대화 계획에 따라 전술제대의 조기경보 및 전장 감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다.

적 항공기, 유도탄 등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거나 공격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공전력은 기존의 호크 유도탄을 개량하여 중·고고도 방공능력을 보강하고, 재래식 대공포와 발칸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형 자주대공포를 획득하는 한편, 근접 대공 방어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형 휴대용 대공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투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 및 전장 감시능력을 개선하고, 전략 제대급의 지휘소 자동화사업을 추진, C4I 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적의 화생방전 위협에 대비하여 전투원의 생존성과 지속적인 작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어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냉전시대를 통하여 대소련 봉쇄전략과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억제라는 공통의 전략목표와 국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군사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동맹관계는 우리 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간의 안보체제는 한·미 방위조약을 근거로 삼아 안보협력에 관한 법적, 공식적인 안보협의체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다져 왔다. 냉전종식 이후 최근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안보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에 제도화된 협력체제를 살펴보면, 1966년 7월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1968년부터 실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1978년 11월 창설된 한·미 연합

사령부, 1991년 11월의 전시지원협정 등이 있다. 또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와 한·미 연합사의 지상 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고, 1994년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등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각군본부 계룡대 이전

육·해·공군은 건군 이후 거의 40여 년 동안 주둔해 온 서울시 시대를 마감하고 보다 튼튼한 국가 안보를 기약하면서 새로운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계룡대는 휴전선으로부터 충분한 중심을 갖는 지역에 위치한 만큼 군은 안정적이고 새로운 전략거점을 구축했다는 데도 그 의의가 크다.

즉 작전지휘의 생존성, 연속성, 안전성과 작전운영의 융통성을 확보함으로써 대북한 및 대주변국 전략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고, 육·해·공군이 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군 상호간의 신속 원활한 협조와 돈독한 유대를 바탕으로 통합전력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또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포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전에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커다란 의의로 꼽을 수 있다.

전장 및 자원관리의 정보화

미래전의 전장환경은 첨단 정밀무기체계의 발달로 실시간의 전장지휘 및 통합전력 발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실시간 통합전력을 발휘하여 최소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전장관리체계로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와 정보를 자동화한 C4I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해군의 해상 및 함정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 분배하는 해군전술 자료처리체계와 공중상황 및 항공기의 기동을 실시간 추적, 처리, 분석한 정보를 지휘관에게 제공해 주는 공군의 자동화 방공체계가 운용중이다.

합동참모본부를 정점으로 하는 전략제대지휘소 자동화체계는 1998년 말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 또한 합동 C4I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연합 C4I 체계 및 국가비상기획체계와 연동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가고 있다. 육·해·공군에서도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C4I 체계의 구축계획과 연계된 군별, 기능별 전술 C4I 체계 건설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육·해·공군의 모든 전투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은 자원관리 정보화의 목표를 평시에는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무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전시에는 작전 수행능력 제고와 적시적인 전쟁지원 능력 확보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예산관리, 군수관리, 산업동원관리, 시설관리, 의무관리 등의 자동화된 정보관리체계를 개발 또는 운용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국방관리 기능체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대한 군수관리 및 획득분야 업무의 자동화를 위해 국방업무에 '지속적인 조달 및 수명주기 지원시스템'(CALS :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무기 및 군수물자의 설계, 개발, 보급, 정비유지, 폐기에 이르는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1998년 9월 1일 국방 CALS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이 급박했던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1994년 12월 1일 한·미 연합사로부터 우리 군(합참)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었다. 44년 만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역사적 사실이며 국군의 자긍심 고양과 함께 국가보위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이 증대되게 되었다.



▶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승주 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 대사가 한국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환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1994. 11. 30)

- ▶ 김영삼 대통령이 이양호 합참의장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신고를 받고 합동참모본부기에 '평시 작전권 환수'라는 수치(繡置)를 달아 주고 있다. (1994. 12. 1)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식



계룡대 시대 개막

육·해·공군은 건군 이후 거의 40여 년 동안 주둔해 온 서울시 시대를 마감하고 보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기약하면서 새로운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계룡대는 휴전선으로부터 충분한 중심을 갖는 지역에 위치한 만큼 군이 안정적이고 새로운 전략거점을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① 육군본부 현판식(1989. 7. 22)



② 공군본부 현판식(1989. 7. 22)



③ 해군본부 현판식(1993. 6. 17)



④ 계룡대 본청 전경(충남 논산 위치)



① 육군 방공포병 공군으로 전군(1991. 7. 1)

육군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됨에 따라 단일 작전지휘체계가 확립되어 통합 방공작전 능력신장 등 보다 완벽한 영공방위체제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②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창설

적의 기습도발에 따른 대응시간 확보 및 다양한 작전 임무수행에 적합한 천연적 지리지형을 활용한 생존성 증대를 위해 중원기지가 건설됨에 따라 제19전투비행단이 창설되었다.(1991. 5. 15)



④ 연합해병대사령부 창설식(1992. 12. 1)

1992년 12월 1일 한·미 연합해병사가 창설되어 평시 사령관은 한국 해병대사령관이, 전시 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미군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하게 되었다.



④ 해병대사령부 이전(1994. 4. 11)

재경부대 교외이전 계획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였다.



❶ K1A1 전차

K1 전차의 기본구조에 기존의 105mm 주포 대신 120mm 활강포를 탑재하여 화력을 대폭 향상시켜 2000년대 초 실전 배치된다.



❷ 한국형 구난전차

K1 전차의 효율적 구난 임무수행을 위해 개발되어 1993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❸ 한국형 교량전차

협곡과 하천 등 자연 장애물에 자동으로 22m의 교량을 가설하여 전차 및 기동장비의 신속한 기동성을 보장해 주며 199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④ 전투지휘용 장갑차

기계화보병사단/기갑여단에 보급되어 지휘관이 전방기동부대와 근접된 지역에서 적시적인 전투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다.



④ 포병 사격지휘 장갑차



④ 탄약 운반 장갑차



④ 화생방 정찰 장갑차

30밀리 자주대공포

중·장거리 방공망을 피해 침투하는 저고도 항공기나 헬기 공격용으로 국내 개발된 장비이다.(성능시험 예정:1999)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우리 고유기술로 개발된 유도무기로서 8발의 미사일과 탐지 및 추적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중·저고도 대공방어체계 개선에 기여가 예상된다.
(시험발사: 1997. 10)



신형 155밀리 자주포(XK9)

현 155밀리 자주포에 비해 사거리가 40km로 연장되고 발사속도 및 기동성 등도 대폭 향상되었으며 현재 실용개발중에 있다.



저고도 탐지 레이더

저고도로 침투하는 AN-2기나 헬기, 초음속 항공기까지도 탐지가능한 첨단 레이더로 국내기술에 의해 1991년 6월 개발되었다.

40밀리 고속유탄 기관총(K-4)

최대사거리 2,200m, 유효사거리 1,500m로 국내개발하여 1993년 12월부터 배치하고 있다.



신형 지프

1997년 12월부터 야전지휘관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군용 6인승 신형 지프

치누크 최신헬기 도입(CH-47D LR)

병력 33명과 5만 4천파운드의 화물인양 능력을 갖추고
연료 재보급 없이 한반도 전 지역을 작전권에 들 수 있는
최신형 다목적 수송헬기다.(1998. 7. 실전배치)



대구경 다련장 로켓(MLRS)

신속한 기동성과 우수한 야지능력으로 북한군의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어 실전배치된다.

※ 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해군 잠수함시대 개막

해군은 1992년 10월 14일 독일 HDW사로부터 1,200톤급 209형 최신에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수하여 1993년 6월 2일 실전배치함으로써 잠수함시대를 개막하였다. 209형 잠수함은 승조원 40명, 평균시속 22노트로 수중을 항해하면서 대함미사일과 어뢰를 발사할 수 있으며 약 2개월간 단독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 분	함 명
1호함	장보고함
2호함	이 천 함
3호함	최무선함
4호함	박 위 함
5호함	이종무함
6호함	정 운 함
7호함	이순신함



① 이순신함 진수식

7번째 국산 잠수함인 이순신함의 진수식 장면(1998. 5. 21. 대우 옥포조선소)

② 국산 잠수함 항해 모습



한국형 구축함(KDX-1)

한국형 구축함은 4,000톤급으로서 주포 1문, 근접방어 무기체계,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어뢰 등이 장착되고 2대의 헬기 탑재가 가능하며 화생방 보호체계까지 갖춘 최신에 전투함이다.

구분	함명
1번함	광개토대왕함
2번함	을지문덕함
3번함	양만춘함



❶ 양만춘함 진수

한국형 구축함 (KDX-1) 3번함인 양만춘함의 진수식 장면(1998. 10. 19)

❷ 광개토대왕함의 위용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KDX-1)으로 1996년 10월 28일 진수되어 각종 운용시험을 거쳐 1998년 7월 해군에 인도됐다.





❶ 국산 상륙함 2호인 비로봉함

국산 상륙함은 2,400톤급으로 수륙양용전차, 헬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에 전투 상륙함으로 1998년 4월 실전배치됐다.



❷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23명의 병력을 싣고 육상에서 시속 72km, 해상에서 13km의 기동이 가능한 최신에 수륙양용 전투장비다.(1997. 7. 18. 출고)



📍 잠수함용 중어뢰 개발

국방과학연구소는 길이 6m, 중량 1,100kg, 속도 35노트(시속 63km)의 중어뢰를 1998년 7월 개발하여 첨단무기 개발 능력을 한 단계 높였다.

📍 해상작전헬기(LYNX) 도입

대함 및 대잠전, 주요 항만방어 및 긴급수송, 정찰 감시 등을 위해 1991년 도입된 LYNX헬기가 Sea-Skua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해상초계기(P-3C) 도입

1995년 4월 25일 해상초계기(P-3C)가 도입됨에 따라 대잠수함/함정 탐색 및 공격임무 수행 등 완벽한 해상 작전체제가 구축되었다.



한국형 전투기(KFP) 사업

공군 전력증강과 국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작한 KFP(Korean Fighter Program) 사업은 1단계로 F-16 완제기 12대를 1995년 5월 직도입한 이래, 2단계로 36대를 국내에서 조립 생산 완료하고, 3단계인 면허생산 단계에서는 핵심부품을 제외하고는 국내 생산부품으로 72대가 1999년까지 최종 조립 생산된다.



🕒 KF-16 국산화 1호기 출고식(1997. 6. 30)

KF-16 완제기 35만여 개 부품 중 30여 만개를 1백여 개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여 항공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형 고등 훈련기(KTX-2)

조종사에게 초음속 항공기 비행특성 습득과 전술 비행임무 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경공격기용으로도 활용키 위해 현재 개발중에 있다.



❶ **한국형 기본훈련기(KTX-1)**

군용항공기로서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로 시험비행을 통해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1998년 10월 26일 서울에어쇼에서 대내·외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HH-47헬기 도입(1991. 12. 31)

장거리 작전능력 보완 및 중장비 공수능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❷ **최신에 고등훈련기 「호크」 도입(1992. 9. 18)**

공군 고등 비행과정 훈련기로 활용되며 유사시 미사일, 기관포, 폭탄 등을 탑재하고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



① 중형 수송기(CN-235M) 도입(1994. 5. 12)
탄약, 장비 등의 전천후, 주야간 전술 공수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① 휴대용 대공 유도탄 「미스트랄」 도입(1991)
사정거리 약 5km로 대공포와 함께 국지 대공방어망의 핵심전력이다.

병영시설 개선

장병생활에 기본이 되는 내무반, 세면장, 화장실 등 병영 필수시설 현대화를 위해 1983년부터 대대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1996년까지 1차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1966년 이후 건축한 구형 통합막사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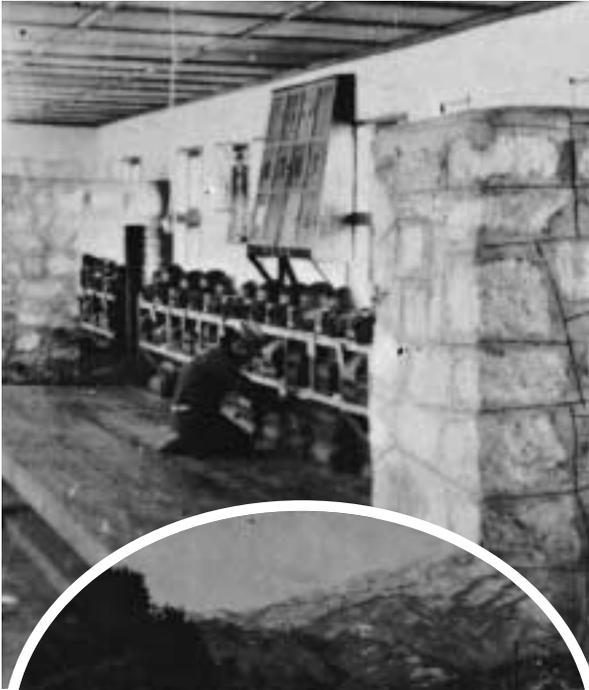
① 건군기 야전숙사



② 야전식사 배급

③ 건군기 콘센트 막사와 내무반





① 1950년대 전방 막사 및 내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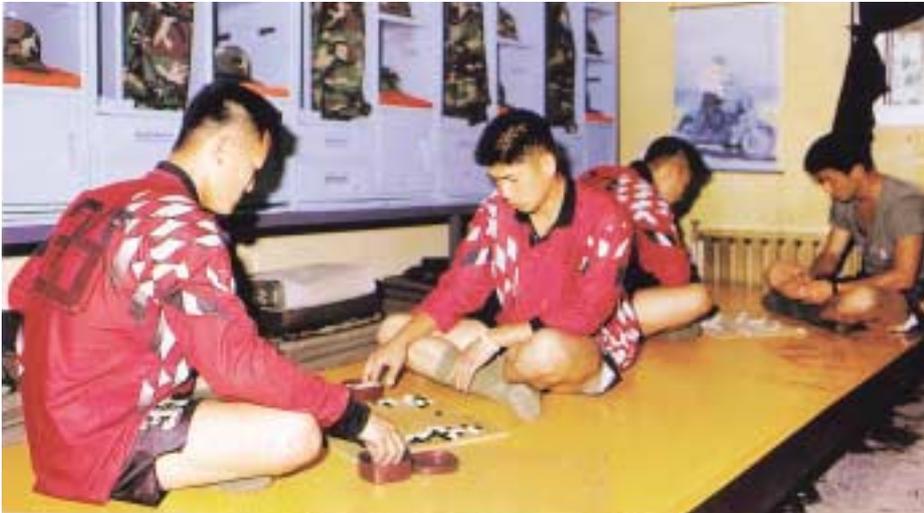
② 구형 막사

③ 구형 대대 통합막사(1970년대 초)





① 현대화된 대대 통합막사(1990년대)



② 내무반



③ ④ 현대식 주방과 사병식당



군 숙소 현대화

보직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주거안정과 비상대비태세 상시 유지를 위해 근무지 주변지역에 아파트 및 관사를 2000년까지 확보하고 2001년부터는 노후 및 협소한 관사를 개선할 계획이다.



❶ 구형 관사



❷ 용산에 건립된 최초의 군인아파트(1964. 12)



❸ 현대화된 계룡대 군인아파트(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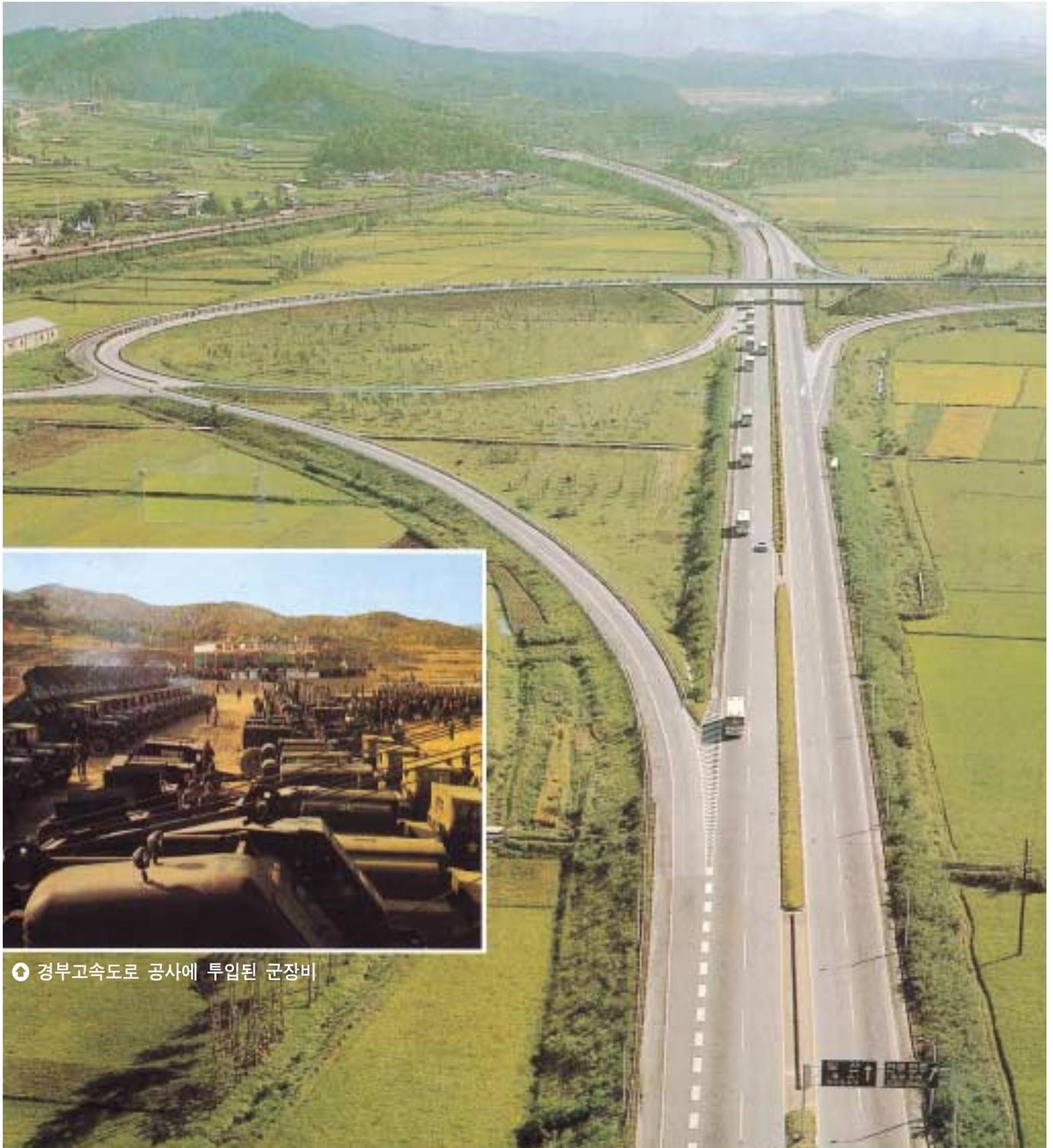


❹ 현대화된 독신 간부숙소(1990년대)

국토건설 지원

경부고속도로(1970. 7. 1. 개통) 건설에 연 인원 17만여 명이 참여했던 우리 군은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로건설과 농촌 경지정리사업 등 국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로 건설(21.8km), 시흥-안산 고속도로(12.5km), 남·북 연결도로(17.2km), 백령도 도로개설(21.4km), 농촌 경지정리 사업(93ha) 등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강화도 해안 순환도로(64.2km) 건설을 1999년도 완공 목표로 지원중에 있다.



◉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투입된 군장비

◉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7. 1)

군은 1968년 1월 25일부터 1996년 9월 1일까지 연 인원 17만여 명을 지원하였다.



❶ 도로공사에 투입된 공병 중장비(1970. 6)



❷ 도로포장 공사



❶ 산간오지 마을 진입로 개설



❷ 육군 상륙수부대(1115야전공병)의 총남 부여 농촌 경지정리 지원(1994. 12)



① 강화 해안 순환도로 공사중인 육군 필승공병부대 중장비(1998)



② 성토 운반중인 필승공병부대 덤프트럭

팀스피리트 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이다. 이 연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 간의 상례적인 연합연습으로서 순수한 방어 위주의 훈련이다. 북한은 과거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북한에도 팀스피리트 연습에 참관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연습은 한·미 동맹관계의 확인과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 및 군사능력 배양에 필수적인 연습이지만, 남북 관계개선과 핵협정 준수 등을 위해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다.



① 외국군 장교 훈련참관



② 한·미 장병 악수

③ 한·미군 배속신호



단정 도하



㉠ 렌스 미사일의 위용(198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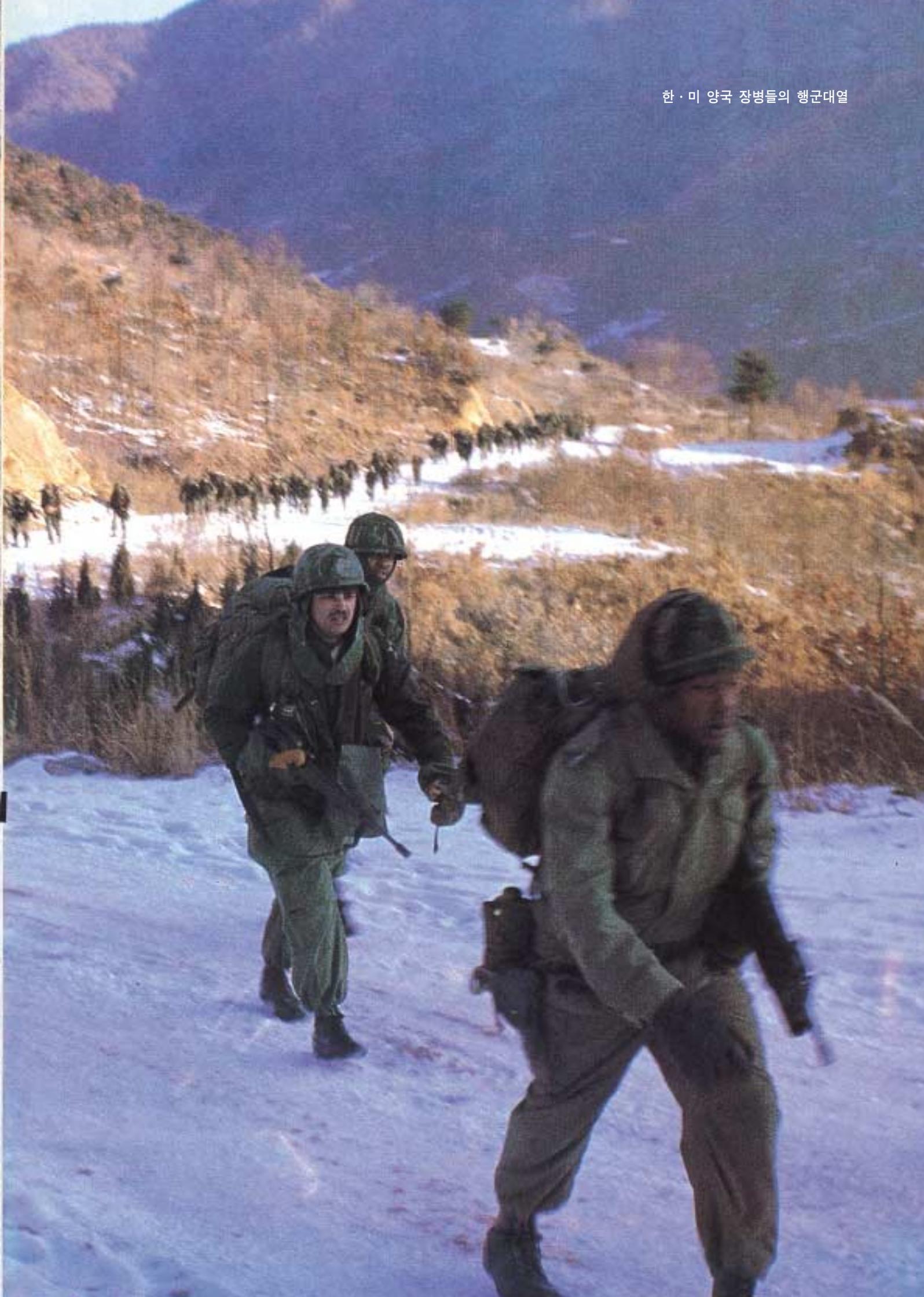


작전지역으로 이동

㉡ 휴식중 한·미 장병 친선게임







긴급출격하는 미 해군 조종사
(미 항모 미드웨이 갑판상에서)



최신에 한국형 전투함 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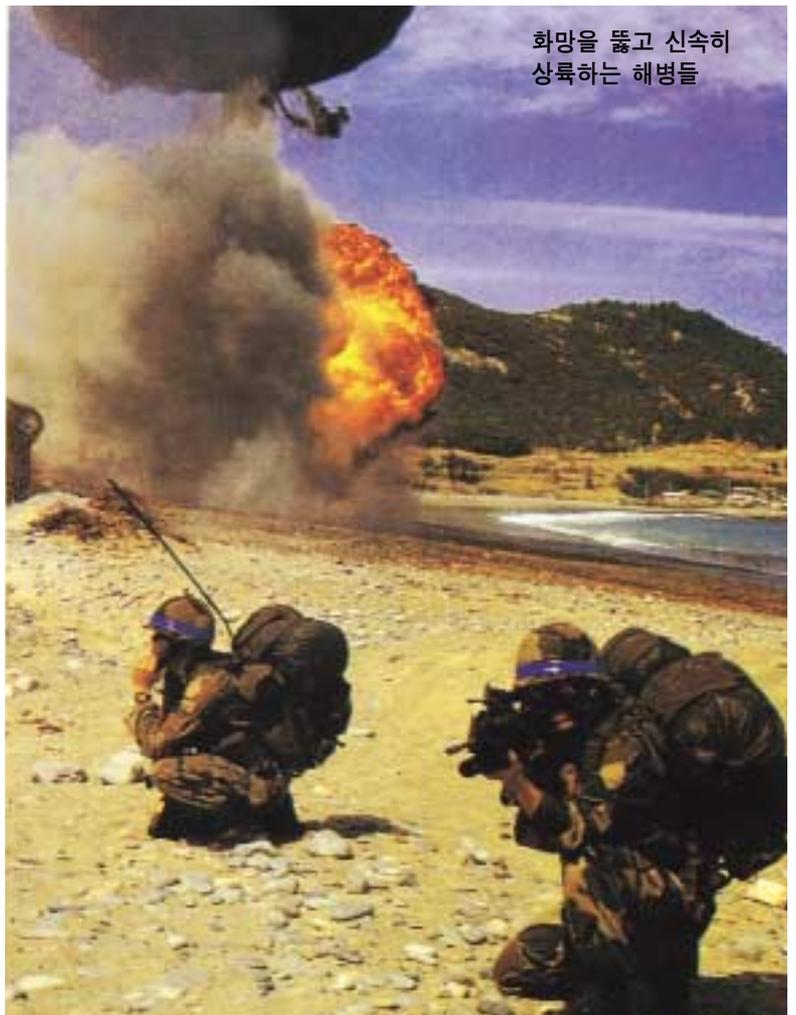


**팀스피리트 훈련에 8회 참가한 미 제7함대 주력 항공모함
미드웨이의 위용**

중량(만재톤수) 64,000t, 승조원 4,400명, 길이 298.4m, 폭 36.9m, 비행갑판
높이 10.8m, 비행갑판 폭 72.5m, 항공기 탑재 75대, 최고속력 30노트



해안상륙



희망을 뚫고 신속히 상륙하는 해병들

한·미 합동 비행훈련(제공호와 미국의 A-10기)



고속도로 비상이착륙 훈련

미군의 스텔스기



환태평양 훈련

환태평양(RIMPAC: Rim of the Pacific) 훈련은 유사시 태평양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태평양 연안국들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미 태평양지구사령부 주관하에 1971년부터 2년에 1회씩 태평양상에서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 해상기동훈련으로서 우리 해군은 1990년도 제 12회 훈련부터 참가해 오고 있다.







76밀리 함포사격(림팩 '94훈련)

해상보급훈련



연합기동훈련



'98 화력통합운동 훈련

육군은 정부수립 및 건군 제50주년을 맞아 사상최대 규모의 화력통합운동 훈련을 1998년 9월 28일 중부전선 승진훈련장에서 실시하였다. 이 날 훈련에서는 F-4E, F-5, KF-16, A-10 등 한·미 전투기에 의한 정밀폭격과 적 격멸지역에 대한 포병사격, 적 전차 킬러인 한·미군 무장헬기의 위력적인 제압 사격 그리고 토우·발칸 등 야전 방공무기와 다련장 로켓포 등을 포함한 지상무기들이 막강한 화력을 유감없이 보여 줌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KM202A1 로켓발사기 표적



KM202A1 로켓발사기



④ 화력통합운동 훈련장 전경





- ④ 155미리 자주포 사격장면
- ④ 155미리 자주포 기동



입체고속 기동전



① 가상 적 진지에 코브라 헬기 사격



② 아파치 헬기 사격장면



③ 지상토우 표적



④ 지상토우 사격장면



⑤ 105밀리 곡사포 표적(V자형 사격)

국제 관함식

1998년 10월 13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일본 등 세계 12개국 60여 척의 함정과 항공기 20여 대가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해상 퍼레이드를 벌이는 '9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건군사상 최초로 개최됐다.



① 환영행사



② 한국 해군의 최첨단 전투함정들이 진형(Formation)을 형성한 채 해상기동을 실시하고 있다.



❶ 기뢰 폭파



❷ 국제 관함식에 참가한 프랑스의 「서쿠프」함이 10월 13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❸ 미 해군 항공모함 키티호크호 공개행사



서울 에어쇼 '98

공군에서는 1998년 10월 26일부터 7일간 서울공항에서 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어쇼 '98을 개최했다.

세계최단 항공기들의 시범비행과 유명 에어쇼팀의 곡예비행, 항공우주관련 최첨단 군사장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① 6인승 경헬리콥터인 BO-105

작은 정찰헬기답게 고도의 기동성과 생존능력을 갖고 있다. 기체가 견고하고 로터 블레이드를 접개식으로 접을 수 있다.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스텔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최초로 선을 보이는 미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

활주로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다. 파괴된 활주로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륙작전시 교두보가 확보되면 즉시 항공지원이 가능하다. 사이드와인더, 매직 같은 공대공 미사일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탑재하고 있다.



③ 프랑스군의 차세대용 전투기 「라팔」

공중전시 뛰어난 기동성과 최첨단 전자장비에 항법 및 무장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 최신형 30mm 기관총 1문이 탑재되며 12개의 발사대를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 미 공군이 초고도 장거리 전략정찰기로 사용하고 있는 U-2

12시간 동안 체공하면서 전선으로부터 약 80마일 떨어져 있는 목표물까지 탐색할 수 있다. 엔진 개량을 통해 고도 9만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활공이 가능하다.

◀ 미 공군의 스텔스성 전략폭격기인 B-1B. 60m까지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다.

육의 전시장 전경



건군 50주년 국군의 날 행사

건군 50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1998년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시내 일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정부수립 50주년」과 동시에 「건군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행사로서 국민의 국방시대를 맞아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기념식 행사와 함께 도심 일원에서 시가행진을 펼쳤다.









